

효성, 신용등급 BBB+ 유지

한국신용평가는 2월28일 분식회계를 고백한 효성의 신용등급을 <BBB+>로, 기업어음 등급은 <A3+>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.

한신평은 “효성이 발표한 분식회계 내용이 현금흐름 및 차입금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”며 “회계분식 공시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오히려 회계 투명성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해소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강조했다.

효성은 1998년 합병한 효성물산의 미국, 홍콩, 싱가포르, 독일 등 4개 해외 판매법인의 합병이전 회계 처리와 관련해 4296억원의 회계분식이 있었다고 밝혔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상훈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3/02>